

생태축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의 서비스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인식 차이 분석을 바탕으로

A Study on the Future Direction of Eco-festivals

: Based on the Perceptual Gaps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Residents of
Ham-Pyung Butterfly Festival and Mu-Ju Firefly Festival

이 경 진* · 송 명 규**

Lee, Kyoung-Jin · Song, Myung-Gyu

Ⅰ 목 차 Ⅰ

- I. 서 론
- II.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축제의 개요와 연구 설계 및 가설
- IV. 실증분석
-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축제인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를 사례로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의 축제에 대한 인식(효과, 운영방식, 지명도, 차별성, 발전가능성 등)과 참여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집단 간에 비교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석결과,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효과와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참여도, 그리고 지명도·경쟁력/차별성·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정(評定)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대부분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생태축제의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에는 뚜렷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국대학교대학원 도시계획및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재학(주저자)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2. 11. 9, 심사기간(1,2차): 2012. 11. 10 ~ 2012. 12. 28, 게재확정일: 2012. 12. 28

□ 주제어: 생태축제, 인식 차이, 서비스 공급자, 지역주민

This study aims; first, to investigate the perceptual gaps between eco-festival service providers and residents in the aspects of promising effects, managerial means, name value, uniqueness, and developmental vision of the festival and i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and satisfaction from the festival, and seco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gaps through statistical hypothesis test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nd the tests show; first, the residents' satisfactions from the promising effects and managerial means of the festival turn out to be lower than the host's satisfactions in the whole, and second, the residents' appraisals of the name value, uniqueness, developmental vision, and participatory level, and their satisfactions from the festival are also proved to be lower than the host's appraisals and satisfactions in the whole.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residents' more active participatory and cooperative attitudes are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to the prosperity of the festival and that in the part of the host, motivational efforts and persuasive public relations are highly required to induce the residents to assume these attitudes.

□ Keywords: eco-festival, perceptual gap, service provider, resident

I. 서론

지역축제는 지역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방문객들에 대해 지역의 위상을 제고시키며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총체적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지역축제의 이러한 기능은 특히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별다른 성장 동력을 갖추지 못한 농어촌 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적 투자활동이 그러하듯이 '지역축제'라고 하는 공공투자 역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지역축제 중 상당수가 비록 대외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고 지명도를 높여가며 방문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비판과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생태축제의 경우 더욱 심각하리라 추정된다. 왜냐하면 생태축제는 주민들의 소득 증진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간접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축제가

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산물 축제의 경우, 생산 농어민들은 상품 홍보와 판매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나비나 반딧불 같은 생태자원은 그 자체가 상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속가능성과 이른바 '웰빙'이 전지구적 과제와 유행이 되고 있고 소득증대, 수명 연장, 여가 확대, 친환경적 삶의 추구가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정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생태축제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청정성과 친환경성을 홍보하고 생태자원의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품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새로운 관광유형인 생태관광¹⁾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토와 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축제 유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태축제인 함평나비(대) 축제(이하 '함평' 혹은 '나비축제'로 약칭)와 무주반딧불축제(이하 '무주' 혹은 '반딧불축제'로 약칭)를 사례로 서비스 공급자(이하 '공급자'로 약칭)²⁾와 지역주민의 축제에 대한 인식(효과, 운영방식, 지명도, 차별성, 발전가능성 등)과 참여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집단 간에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드러난 두 축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축제에 대한 '주민 참여와 호응 유도'라는 관점에서 생태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생태축제의 개념

송명규·이경진(2012)에 따르면 생태축제는 명확한 구별 없이 '환경축제' 혹은 '자연축제'와 혼용되거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학자들³⁾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생태축제는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테마로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지역 환경의 쾌적성을 알리고 관

1) 생태관광은 국제적으로 1980년대에 '대량 관광'의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생태관광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붐을 이루게 된 기폭제는 경남 창원에서 2008년에 열린 람사르 총회였다. 그 즈음 순천만 일대가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태관광이 크게 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전기였다(김형국, 2011:422-423 참조).

2) 본 연구에서의 서비스 공급자는 축제의 주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이다.

3) 정강환·노용호(2003), 박미숙·이훈(2004:273-274), 서정원(2005:17), 허성란(2010:272), 여영숙(2009:387), 송명규(2012) 등.

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라고 말할 수 있다.⁴⁾ 그러나 생태축제의 정의에서 핵심적 개념인 '생태'에 대한 정의는 송명규·이경진(2012)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거의 제시된 바가 없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생태란 '야생 동식물이 그 자연적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 정의를 수용하여 생태축제를 '야생 동식물이 그 자연적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생태 현상을 소재로 하되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 및 교육 지향적 축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인식 차이와 갈등에 관한 이론적 설명

인식 차이란 개인 혹은 집단 사이에서 동일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견과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를 지칭한다. 한편 갈등이란 개인 혹은 집단 사이에서 추구하는 이익이나 목표가 서로 충돌하여 상호간 대립적 관계가 형성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인식 차이와 갈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인식 차이는 그 원인이 추구하는 이익이나 목표의 차이, 또 이로 인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회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지역축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데, 이들마다 추구하는 이익과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같은 현상에 대한 인식 및 평가의 차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인식 차이는 축제를 둘러싼 집단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 쉬운데, 공급자와 방문객, 지역주민과 방문객 사이의 갈등은 대체로 축제의 종결과 함께 사라지는 성격을 갖지만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지속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증폭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축제를 둘러싼 참여자 간의 인식 차이를 밝히는 것은 축제와 관련된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화합'이라는 지역축제의 목표 중 하나를 보다 발전적으로 성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이다.

갈등과 그 효과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소위 '기능적 갈등 이론'으로서, 갈등이란 어느 사회에서나 상존하기 마련인데, 이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소위 '변증법적 갈등 이론'으로서, 갈등이란 기존 사회의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의 사회가 탄생하는, 즉 변증법적 사회 변혁의 씨앗이 된다는 견해이다.⁵⁾ 전자가 말하는 사회 발전이란 기존 사

4) 생태축제는 환경축제(지역의 자연 혹은 생태환경 보존과 그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의 축제를 말하고, 대체로 참여자들의 체험활동을 중요시함)의 일종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명규·이경진(2012: 51-83) 참조.

회의 체제나 구조 그 자체는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의 부분적, 점진적 개선을 의미하며, 후자가 말하는 사회 변혁이란 그 기본적인 체제 자체가 전혀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하는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전자의 사회 발전을 미시적, 연속적 현상이라 한다면 후자의 사회 변혁은 거시적, 단절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떻든 본 연구는 '기능적 갈등 이론'에 입각하여 갈등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나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사회 혹은 조직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역축제를 둘러싼 참여자 중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의 인식 차이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고자 한다.

3. 선행 실증연구 검토

지역축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그들의 참가동기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이며, 아직까지 본 연구처럼 축제를 둘러싼 이해집단 간의 갈등 혹은 축제 참여자 간의 인식 차이에 초점을 두고 축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체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어떻든 그런 여건이나마 최근까지 발표된 연구들의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해집단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해집단 간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축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에는 Dearden & Mitchell(1998), 오정근(2009), 노경희(2010) 등이 대표적이다. Dearden & Mitchell(1998)에 의하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지방정부 차원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때가 많았는데, 특히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이에 실망한 지역사회단체 혹은 주민들이 축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요구하고 나아가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오정근(2009)은 지역축제를 둘러싼 이해집단을 두 개의 차원으로, 즉 추구하는 이익이 개인적인 것인가 공적인 것인가에 따라 특수이익집단과 일반이익집단, 축제로 이익을 얻는가 혹은 손해를 보는가에 따라 수혜기대집단과 피해예상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공익을 추구하며 축제 개최로 수혜가 기대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는 사익을 추구하며 축제로 인해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피해가 예상되기

5) 박영신(1984:143-186) 및 송복(1986:15-29) 참조.

도 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지역주민, 지방정부-지역단체의 갈등을 설명하였다.

노경희(2010)는 지역축제의 추진과정에서 이해집단 간 갈등관리가 축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성과가 큰 축제라고 하더라도 갈등 원인은 항상 내재되어 있고 실제의 갈등 수준도 낮지 않으며 둘째, 그 갈등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⁶⁾ 이에 연구자는 지역축제에서 이해집단 간 갈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축제 성과를 향상시키고 집단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단체의 요구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이해집단 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축제 참여자 간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축제 참여자 간의 인식 차이에 초점을 두고 축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에는 이훈·Kerstetter(1997), 고동우(2005), 광민정(2010) 등이 대표적이다. 이훈·Kerstetter(1997)는 미국 센트럴 펜실베이니아 예술축제(The Central Pennsylvania Festival of Arts) 방문객을 지역주민 참가자와 외부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참가 동기, 축제행사 평가 및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지역주민 참가자와 관광객 간에는 축제에 참가하는 동기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그들은 지역주민 참가자들이 행사 평가와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관광객들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지역주민에게는 자신들의 축제가 재미있는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축제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기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동우(2005)는 제주도세계섬문화축제에 참가한 방문객과 공급자를 대상으로 축제 평가 수준이 다른지를 확인하고, 만약 다르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8년과 2001년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방문객(지역주민·타지역 방문객)과 공급자 간에는 평점, 만족도, 재방문 의사 및 추천의사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급자와 지역주민은 1998년 축제에 비해 2001년 축제를 실패한 사례로 평가한 반면, 타지역 방문객은 2001년 축제를 더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만족도, 재방문 여부, 추천의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는 타지역 방문객들은 1998년 축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기성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역주민이나

6) 신용석(2004)과 송영택(2006)의 연구에서도 지방정부와 축제조직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갈등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혹은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공급자는 이미 경험한 1998년 축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곽민정(2010)은 안동국제탈춤축제를 사례로 축제 홍보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축제에 대한 기본인식(축제의 목표), 실행과정(지역주민의 참여도, 홍보매체 선정 방법, 홍보시기, 지역민의 화합 등), 실행 후 평가(발전가능성 등) 등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공급자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지역축제,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무주반딧불축제와 함평나비축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다.⁷⁾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이들 및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다르다.

첫째, 본 연구는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두 개의 축제를 비교분석한다는 점에서 보통 하나의 축제에 초점을 둔 여타 연구와 다르다.

둘째, 본 연구는 축제 자체의 차이, 그리고 각 축제 내의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동시에 분석한다는 점에서 매우 복합적이고 종합적이며, 또한 첫 설문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다 정밀한 두 번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통상 1회의 조사에 그치는 여타 연구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⁸⁾

셋째,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시대를 맞이하여 생태계 보존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상이한 가치를 '생태축제'라고 하는 문화상품을 통해 동시에 또한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방법 및 전략에 대한 탐구의 하나이다. 물론 축제 그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⁹⁾ 본 연구와 같이 생태축제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7) 대표적인 연구를 추려보면 함평의 경우는 김준(2003), 김성학(2003), 김영미 외(2007), 김양수(2007), 이재광(2009) 등, 무주의 경우는 정강환·노용호(2003), 서정원(2005), 박미수(2007), 진병순(2009) 등이 있다.

8) 물론 곽동우(2005)도 2회에 걸쳐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하나의 '섬문화' 축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여타 축제나 본 연구가 탐구 대상으로 하는 '생태' 축제에서도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

9) 축제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들은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축제의 개요와 연구 설계 및 가설

1. 축제의 개요

무주반딧불축제와 함평나비축제는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우선 개최지가 호남의 농업지역이며, 축제의 역사도 16년과 14년으로 유사하다. 2012년의 예산 규모도 10억 원과 12억 원으로 유사하며, 개최 시기도 6월과 4/5월로서 초여름과 늦봄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유사점은 둘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축제이며, 그 소재가 각기 반딧불과 나비라는 곤충이라는 점이다.

다만 축제 등급과 소재의 고유성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① 반딧불축제가 비록 역사가 2년 앞서고 나비축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기는 하나 최근 6년간의 문화관광축제 등급은 나비축제가 상대적으로 앞서며, ② 무주의 반딧불은 그 자체와 서식지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¹⁰⁾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나비는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③ 축제 내용 면에서도 반딧불축제는 반딧불 방사, 반딧불 야간 관찰 등 생태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반면 나비축제는 나비 방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시, 공연, 제작, 유희 등 일반적인 종합 축제의 면모를 띠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반딧불축제는 1997년에 시작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태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 축제는 이미 16년이라는 역사와 함께 상당한 지명도를 얻고 있어서 많은 학술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함평나비축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두 축제는 우리나라 생태축제 혹은 환경축제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두 축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1) 설문조사의 절차와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설문조사는 함평은 2012년 6월 18일부

10) 정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반딧불이 서식하고 있는 무주 설천면 일원의 반딧불과 그 먹이(다슬기) 서식지를 1982년에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반딧불축제의 '반딧불탐사 프로그램'은 야간에 이 서식지에서 이루어진다.

터 6월 19일까지 이틀간 공급자와 지역주민 각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무주는 2012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틀간 공급자와 지역주민 각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¹¹⁾ 조사된 설문지는 빈도분석, 신뢰도 검정, 그리고 동일한 질문에 대한 집단별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가설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로 통일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지역축제의 효과에 대한 인식, 축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 축제 참여도,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축제의 지명도에 대한 평가, 축제의 경쟁력 및 차별성에 대한 평가, 축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 표본의 특성에 관한 사항 등 크게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은 설문지의 구조와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보여준다.

<표 1> 설문지의 구조 및 질문 내용

항목	질문내용	비고
1. 축제의 효과	나비(반딧불)축제가 함평(무주)의 위상과 지명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나비(반딧불)축제가 함평(무주)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 나비(반딧불)축제가 함평(무주)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
2. 축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나비(반딧불)축제 운영방식에 만족하십니까?	.
	(보) 현재의 나비(반딧불)축제 운영방식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3. 축제 참여도	나비(반딧불)축제에 대한 귀하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보) 나비(반딧불)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공급자에게만 질문)	.
	(보) 나비(반딧불)축제에 대한 공급자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지역주민에게만 질문)	.
	(보) 지역발전 측면에서 볼 때, 나비(반딧불)축제에 대한 참여도는 어느 집단에서 가장 높아야합니까?	..

11) 2012년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2011년도에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의 참여자(공급자, 지역주민, 방문객)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참여자 중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에 대한 인식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항목	질문내용	비고
4.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다음 번 나비(반딧불)축제가 기대된다.	*
	나비(반딧불)축제는 체험비 및 참가비가 아깝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비(반딧불)축제의 방문을 권유하겠다.	
	나비(반딧불)축제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보) 나비(반딧불)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공급자에게만 질문)	
	(보) 나비(반딧불)축제에 대한 공급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지역주민에게만 질문)	
5. 축제의 지명도에 대한 평가	(보) 지역발전 측면에서 볼 때,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집단에서 가장 높아야합니까?	**
	“함평(무주)”하면 나비(반딧불)축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나비(반딧불)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축제이다.	*
6. 축제의 경쟁력 및 차별성에 대한 평가	나비(반딧불)축제는 경쟁력 및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축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	나비(반딧불)축제는 앞으로 함평(무주)군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나비(반딧불)축제는 앞으로 더욱 번창할 것이다.	
	나비(반딧불)축제는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질 것이다. 함평(무주)의 “나비(반딧불)” 브랜드는 축제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8. 표본 특성	소속 집단, 참여횟수,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학력 등	**

* 응답 범주가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문항.

** 응답 범주가 다중택일로 되어 있는 문항.

주) 질문에서 “(보)”는 가설검정을 위한 질문의 보조 질문임.

주) 설문지의 구조와 질문에 대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함.(단, 보조질문 제외)

3) 연구가설

지역축제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의 인식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 원인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훈과 Kerstetter(1997)의 설명으로, 지역주민은 외부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문화적 영향의 유익성 정도, 일상생활에의 방해 정도, 경제적 비용 및 혼잡 정도 등에 대한 평가가 자신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급자에 비해 축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며, 둘째는 광민정(2010)의 주장으로, 축제에서 지역주민은 공급자와 달리 참관자적 입장에 머물 뿐, 기획이나 집행 등 의사결정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급자에 비해 축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런 이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가 더 있다고 본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축제, 그 중에서도 특히 생태축제는 소득 증진과 지역 발전 효과가 즉각적이거나 가시적이지 않으며, 축제를 위한 직·간접적 규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축제에 대한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미 고령화되어 있어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공급자에 비해 축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① 지역축제의 효과와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공급자와 지역주민 사이에 차이가 있고 이는 다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참여도, 그리고 평정(지명도·경쟁력/차별성·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評定)에 영향을 미치며, ② 따라서 동일 항목에 대한 평가 역시 공급자와 지역주민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이를 실증 조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인 바, 이를 가설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효과와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립가설).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효과와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귀무가설).

가설2: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참여도, 그리고 지명도·경쟁력 / 차별성·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정(評定)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대립가설).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참여도, 그리고 지명도·경쟁력 / 차별성·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정(評定)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귀무가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 2〉는 2012년 함평과 무주에서 시행된 설문조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이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두 축제 모두에서 공급자와 지역주민의 특성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두 축제 모두 성별은 남성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지역주민이 공급자보다 높았고, 학력은 공급자가 지역주민 보다 높았다. 이는 함평과 무주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¹²⁾ Cronbach 알파 값으로 측정된 조사의 신뢰도는 함평 0.938, 무주 0.95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¹³⁾

〈표 2〉 축제별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조사의 신뢰도

단위: 인, (%)

구분		2012년			
		함평		무주	
		공급자	지역주민	공급자	지역주민
성별	남	70(66.0)	59(57.3)	67(62.6)	57(51.8)
	여	36(34.0)	44(42.7)	40(37.4)	53(48.2)
연령	20대	9(8.5)	6(5.8)	10(9.3)	10(9.1)
	30대	45(42.5)	21(20.4)	38(35.5)	32(29.1)
	40대	34(32.1)	38(36.9)	29(27.1)	40(36.4)
	50대 이상	18(17.0)	38(36.9)	30(28.0)	28(25.5)
최종학력	무학	0(0.0)	0(0.0)	1(0.9)	1(0.9)
	초졸	0(0.0)	7(6.8)	1(0.9)	1(0.9)
	중졸	0(0.0)	12(11.7)	0(0.0)	3(2.7)
	고졸	19(17.9)	42(40.8)	32(29.9)	47(42.7)
	대졸	83(78.3)	41(39.8)	69(64.5)	56(50.9)
	대학원이상	4(3.8)	1(1.0)	4(3.7)	2(1.8)
전체		106(100.0)	103(100.0)	107(100.0)	110(100.0)
Cronbach 알파 계수		0.938		0.956	

2. 분석결과

1) 가설1의 검정과 해석

〈표 3〉은 나비축제와 반딧불축제의 효과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의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나비축제와 반딧불축제 모두에서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두 축제 모두에서 축제의 효과에 대한 평점은 지역주민보다 공급자에서 더 높았다.

한편 축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역은 두 축제 모두 '문화적 발전 측면'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볼 때 두 축제는 지역문화의 창달과 전파 측면에서는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4〉 참조).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축

12)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함평군은 30.10%(전라남도: 18.29%, 전국 11.4%)이며, 무주군은 26.88%(전라북도: 15.22%)임.

13) 2012년의 신뢰도가 두 축제 모두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2012년 조사가 2011년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를 통해 가장 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발전, 특히 주민소득 증가(Perdue, et. al, 1990; McGee and Andereck, 2004; 조배행 외, 2005 참조)일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두 축제가 지역주민들의 보다 많은 지지와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축제는 기본적으로 ‘문화’ 행사라는 점에 대한 대민(對民) 홍보 및 설득이 대단히 중요하며 아울러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3> 축제의 효과에 대한 인식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집단별 평균		
질문	등분산 성립 여부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	집단	N	평균
나비축제가 합평의 위상과 지명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됨	6.562	0.011	3.874	0.000	0.514	공급자	106	4.340
	가정 않음			3.854	0.000	0.514	지역주민	103	3.825
나비축제가 합평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됨	0.023	0.881	2.587	0.010	0.352	공급자	106	3.906
	가정 않음			2.586	0.010	0.352	지역주민	103	3.553
반딧불축제가 무주의 위상과 지명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됨	0.059	0.809	2.548	0.024	0.316	공급자	107	4.271
	가정 않음			2.555	0.022	0.316	지역주민	110	3.955
반딧불축제가 무주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됨	1.898	0.170	3.292	0.002	0.402	공급자	107	4.084
	가정 않음			3.300	0.002	0.402	지역주민	110	3.681

<표 4> 축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역에 대한 인식

구분	집단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사회적 측면	기타	전체
(보) 나비축제가 합평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공급자	0 (0.0%)	30 (28.6%)	47 (44.8%)	27 (25.7%)	1 (1.0%)	105 (100.0%)
	지역주민	2 (2.1%)	26 (26.8%)	42 (43.3%)	22 (22.7%)	5 (5.2%)	97 (100.0%)
(보) 반딧불축제가 무주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공급자	0 (0.0%)	28 (26.7%)	50 (47.6%)	24 (22.9%)	3 (2.9%)	105 (100.0%)
	지역주민	2 (2.0%)	15 (14.9%)	55 (54.5%)	25 (24.8%)	4 (4.0%)	101 (100.0%)

<표 5>는 나비축제와 반딧불축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만족도 차이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축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로 나비축제에서는 ‘공급자와 지역주

민 간 축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된 반면, 반딧불축제에서는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대립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나비축제의 경우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반딧불축제의 경우 본 연구의 가설과 달리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에는 유사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표 5〉 축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집단별 평균		
질문	등분산 성립여부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집단	N	평균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나비 축제 운영방식에 만족하십니까?	가정됨	4.250	0.041	3.284	0.002	0.346	공급자	106	3.453
	가정 않음			3.283	0.002	0.346	지역주민	103	3.107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반딧 불축제 운영방식에 만족하십니까?	가정됨	0.007	0.933	1.935	0.054	0.267	공급자	106	3.345
	가정 않음			1.938	0.054	0.267	지역주민	110	3.082

한편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두 축제 모두에서 '보통이다(3점)' 남짓한 것은 다른 문항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성공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6〉은 축제의 운영방식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을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비축제의 운영방식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두 집단 모두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도', '다양하지 못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딧불축제는 공급자는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도', '다양하지 못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 순, 지역주민은 '다양하지 못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축제의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는 것과 함께 지역주민의 지원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6〉 축제의 운영방식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

질문	집단	공급자의 홍보 활동 미흡	지역 주민의 낮은 참여도	다양하지 못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	지역 환경의 오염과 훼손	기타	전체
(보) 현재 나비축제의 운영방식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공급자	12 (11.3%)	53 (50.0%)	30 (28.3%)	7 (6.6%)	4 (3.8%)	106 (100.0%)
	지역주민	16 (15.5%)	42 (40.8%)	35 (34.0%)	7 (6.8%)	3 (2.9%)	103 (100.0%)
(보) 현재 반딧불축제의 운영방식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공급자	5 (5.6%)	41 (46.1%)	32 (36.0%)	4 (4.5%)	7 (7.9%)	89 (100.0%)
	지역주민	8 (8.6%)	27 (29.0%)	41 (44.1%)	10 (10.8%)	7 (7.5%)	93 (100.0%)

2) 가설2의 검정과 해석

〈표 7〉은 나비축제와 반딧불축제의 참여도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의 인식 차이를 보여 준다. 표에서 보듯이 두 축제 모두에서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 참여도에 대한 평정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두 축제 모두에서 축제의 참여도에 대한 평점은 지역주민보다 공급자에서 더 높았다.

특기할 점은 공급자가 생각하는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공급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참여도 보다 낮으며,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참여도 역시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공급자의 참여도 보다 낮다는 것이다(〈표 8〉 참조). 즉, 축제 참여도에 대해 공급자와 지역주민 모두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공급자보다 낮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집단은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표 9〉 참조).¹⁴⁾ 따라서 이는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급자의 동기부여가 매우 긴요함을 시사한다.¹⁵⁾

14) 이러한 결과는 이덕구(2008)와 서휘석·윤정현(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덕구(2008)는 지역주민들이 만족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였고, 서휘석·윤정현(2006)은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축제의 열기를 만끽할 때에 비로소 지역축제는 곧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15) 허성란(2010)에 따르면 생태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표 7〉 축제의 참여도에 대한 인식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집단별 평균		
질문	등분산 성립여부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	집단	N	평균
나비축제에 대한 귀하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정됨	1.818	0.179	7.048	0.000	0.751	공급자	106	3.887
	가정 않음			7.052	0.000	0.751	지역주민	103	3.136
반딧불축제에 대한 귀하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정됨	6.244	0.013	5.845	0.000	0.719	공급자	107	4.028
	가정 않음			5.858	0.000	0.719	지역주민	110	3.309

〈표 8〉 축제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의 참여도 인식 차이

질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보) 나비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공급자	106	3.425	0.703	0.068
(보) 나비축제에 대한 공급자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주민	103	3.466	0.850	0.084
(보) 반딧불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공급자	107	3.327	0.959	0.093
(보) 반딧불축제에 대한 공급자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주민	110	3.618	0.938	0.089

〈표 9〉 축제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아야 하는 집단

질문	집단	방문객	공급자	지역주민	중앙정부	기타	전체
(보) 지역발전 측면에서 볼 때, 나비축제에 대한 참여도는 어느 집단에서 가장 높아야 하나?	공급자	26 (24.5%)	12 (11.3%)	63 (59.4%)	4 (3.8%)	1 (0.9%)	106 (100.0%)
	지역주민	39 (37.9%)	19 (18.4%)	36 (35.0%)	8 (7.8%)	8 (7.8%)	103 (100.0%)
(보) 지역발전 측면에서 볼 때, 반딧불축제에 대한 참여도는 어느 집단에서 가장 높아야 하나?	공급자	28 (26.2%)	4 (3.7%)	66 (61.7%)	8 (7.5%)	1 (0.9%)	107 (100.0%)
	지역주민	37 (33.6%)	14 (12.7%)	50 (45.5%)	9 (8.2%)	0 (0.0%)	110 (100.0%)

〈표 10〉은 나비축제와 반딧불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의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두 축제 모두에서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평정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두 축제 모두에서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평점은 지역주민보다 공급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공급자와 지역주민 각자가 생각하는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도 공급자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생각하는 지역주민의 만족도보다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공급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다(〈표 11〉 참조). 이는 축제의 만족도에 대해 공급자와 지역주민 모두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공급자보다 낮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보다 더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표 10〉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집단별 평균		
질문	등분산 성립여부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	집단	N	평균
다음 번 나비축제가 기대된다.	가정됨	3.594	0.059	2.779	0.006	0.358	공급자	106	3.717
	가정 않음			2.772	0.006	0.358	지역주민	103	3.359
나비축제는 체험비 및 참가비가 아깝지 않다.	가정됨	1.356	0.246	2.468	0.014	0.307	공급자	106	3.783
	가정 않음			2.465	0.016	0.307	지역주민	103	3.476
다른 사람에게도 나비축제의 방문을 권유 하겠다.	가정됨	6.745	0.010	1.991	0.048	0.218	공급자	106	3.849
	가정 않음			1.986	0.048	0.218	지역주민	103	3.631
나비축제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정됨	0.080	0.778	4.808	0.000	0.533	공급자	106	3.708
	가정 않음			4.798	0.000	0.533	지역주민	103	3.175
다음 번 반딧불축제가 기대된다.	가정됨	3.470	0.064	3.121	0.004	0.417	공급자	107	3.953
	가정 않음			3.125	0.004	0.417	지역주민	110	3.536
반딧불축제는 체험비 및 참가비가 아깝지 않다.	가정됨	2.455	0.119	2.482	0.028	0.328	공급자	107	4.109
	가정 않음			2.484	0.028	0.328	지역주민	110	3.691
다른 사람에게도 반딧불축제의 방문을 권 유하겠다.	가정됨	1.520	0.219	3.025	0.006	0.400	공급자	107	3.991
	가정 않음			3.026	0.006	0.400	지역주민	110	3.591
반딧불축제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정됨	0.005	0.944	4.361	0.000	0.474	공급자	107	3.729
	가정 않음			4.364	0.000	0.474	지역주민	110	3.255

〈표 11〉 축제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의 만족도 인식 차이

질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보) 나비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공급자	106	3.500	0.734	0.071
(보) 나비축제에 대한 공급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주민	106	3.379	0.830	0.082
(보) 반딧불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공급자	107	3.346	0.859	0.083
(보) 반딧불축제에 대한 공급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주민	110	3.400	0.781	0.074

한편 〈표 12〉는 “지역발전 측면에서 볼 때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집단에서 가장 높아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축제 모두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참여도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이 이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더욱 절실함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방문객에 앞서 지역주민의 만족도부터 제고하는 것이 좁게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확보하고 넓게는 축제의 성공과 지속을 성취할 수 있는 열쇠가 됨을 시사한다.

〈표 12〉 나비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 하는 집단

질문	집단	방문객	공급자	지역주민	중앙정부	기타	전체
(보) 지역발전 측면에서 볼 때,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집단에서 가장 높아야 합니까?	공급자	36 (34.0)	9 (8.5)	55 (51.9)	6 (5.7)	0 (0.0)	106 (100.0)
	지역주민	47 (45.6)	11 (10.7)	38 (36.9)	7 (6.8)	0 (0.0)	103 (100.0)
(보) 지역발전 측면에서 볼 때, 반딧불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집단에서 가장 높아야 합니까?	공급자	43 (40.2%)	5 (4.7%)	51 (47.7%)	7 (6.5%)	1 (0.9%)	107 (100.0%)
	지역주민	54 (49.1%)	4 (3.6%)	45 (40.9%)	7 (6.4%)	0 (0.0%)	110 (100.0%)

<표 13> 축제의 지명도에 대한 평가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집단별 평균		
질문	등분산 성립여부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	집단	N	평균
"합평"하면 나비축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가정됨	0.000	0.996	-0.030	0.876	-0.004	공급자	106	4.123
	가정 않음			-0.030	0.876	-0.004	지역주민	103	4.126
나비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축제이다.	가정됨	0.001	0.970	1.466	0.144	0.182	공급자	106	4.076
	가정 않음			1.464	0.146	0.182	지역주민	103	3.893
"무주"하면 반딧불축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가정됨	0.897	0.345	3.427	0.002	0.456	공급자	107	4.065
	가정 않음			3.426	0.002	0.456	지역주민	110	3.609
반딧불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축제이다.	가정됨	2.208	0.139	5.372	0.000	0.661	공급자	107	4.252
	가정 않음			5.383	0.000	0.661	지역주민	110	3.591

<표 13>은 나비축제와 반딧불축제의 지명도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의 평가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축제의 지명도에 대한 평가로 나비축제에서는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지명도에 대한 평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대립가설이 기각된 반면, 반딧불축제에서는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지명도에 대한 평정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나비축제의 경우 본 연구의 가설과 달리 공급자와 지역주민 모두 축제의 지명도에 대해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며, 반딧불축제의 경우 지역주민의 축제 지명도 평가가 공급자보다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반딧불축제의 경우 이러한 평가 차이의 원인을 지역주민에 대한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무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반딧불축제'보다는 '무주리조트' 혹은 '무주구천동'을 들고 있으며, '반딧불축제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에 방문객이 많지 않기 때문¹⁶⁾이라고 지적하고 있음과 관련이 깊다.

16)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은 축제 시기가 농번기인 관계로 참여가 어렵고, 방문객은 주로 반딧불을 보지 못한 세대이거나 그런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인데 축제 시기가 휴가철이나 방학이 아닌 관계로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축제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집단별 평균		
질문	등분산 성립여부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	집단	N	평균
나비축제는 경쟁력 및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됨	0.184	0.668	3.188	0.004	0.460	공급자	106	3.859
	가정 않음			3.187	0.004	0.460	지역주민	103	3.398
반딧불축제는 경쟁력 및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됨	1.349	0.247	4.586	0.000	0.651	공급자	107	3.870
	가정 않음			4.588	0.000	0.651	지역주민	110	3.218

〈표 15〉 축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집단별 평균		
질문	등분산 성립여부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	집단	N	평균
나비축제는 앞으로 함평의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가정됨	0.044	0.833	2.647	0.018	0.303	공급자	106	3.613
	가정 않음			2.644	0.018	0.303	지역주민	103	3.311
나비축제는 앞으로 더욱 번창할 것이다.	가정됨	8.606	0.004	2.685	0.016	0.328	공급자	106	3.726
	가정 않음			2.674	0.016	0.328	지역주민	103	3.398
나비축제는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질 것이다.	가정됨	1.041	0.309	3.417	0.002	0.439	공급자	106	3.613
	가정 않음			3.406	0.002	0.439	지역주민	103	3.175
함평의 “나비” 브랜드는 축제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가정됨	7.120	0.008	2.745	0.014	0.333	공급자	106	3.896
	가정 않음			2.737	0.014	0.333	지역주민	103	3.563
반딧불축제는 앞으로 무주군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가정됨	4.838	0.029	3.945	0.000	0.502	공급자	107	4.084
	가정 않음			3.953	0.000	0.502	지역주민	110	3.582
반딧불축제는 앞으로 더욱 번창할 것이다.	가정됨	6.683	0.010	3.347	0.002	0.454	공급자	107	3.972
	가정 않음			3.353	0.002	0.454	지역주민	110	3.518
반딧불축제는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질 것이다.	가정됨	0.049	0.825	4.063	0.000	0.594	공급자	107	3.766
	가정 않음			4.068	0.000	0.594	지역주민	110	3.173
무주의 “반딧불” 브랜드는 축제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가정됨	1.151	0.285	2.065	0.040	0.296	공급자	107	3.505
	가정 않음			2.064	0.040	0.296	지역주민	110	3.209

〈표 14〉는 나비축제와 반딧불축제의 차별성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의 평가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두 축제 모두에서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차별성에 대한 평정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두 축제 모두에서 축제의 차별성에 대한 평점은 지역주민보다 공급자에서 더 높았다. 그러므로 공급자는 축제의 당위성 혹은 성과 등

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축제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¹⁷⁾ 나아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식상한 프로그램 혹은 축제의 정체성을 해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축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15〉는 나비축제와 반딧불축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의 평가를 보여 준다. 표에서 보듯이 두 축제 모두에서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정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두 축제 모두에서 축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점은 지역주민보다 공급자에서 더 높았다. 그러므로 이미 차별성에 대한 인식에서 언급했듯이 공급자는 축제의 차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생태축제의 위상과 비전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태축제인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를 사례로 축제 참여자 간의 축제에 대한 인식(효과, 운영방식, 지명도, 차별성, 발전가능성 등)과 참여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집단 간에 비교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설 검정 결과, 전체적으로 보아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의 효과와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참여도, 그리고 지명도·경쟁력/차별성·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정(評定)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반딧불축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나비축제의 지명도에 대한 평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생태축제의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에는 뚜렷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차이는 그 원인이 추구하는 이익이나 목표의 차이, 또는 이로 인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지역축제, 그 중에서도 특히 생태축제는 소득 증진과 지역 발전효과가 즉각적이거나 가시적이지 않으며, 축제를 위한 직·간접적인 규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축제에 대한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

17)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두 축제 모두 일부 지역주민의 경우 축제의 성격과 목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축제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도가 일부 프로그램에서 높게 나타나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축제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미 고령화되어 있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주최측에 비해 축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생태축제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첫째, 축제는 기본적으로 '문화' 행사라는 점에 대한 공급자의 대민(對民) 홍보 및 설득이 대단히 중요하며 아울러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축제의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는 것과 함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급자의 동기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공급자는 축제의 당위성 혹은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과 공유해야하며 나아가 축제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생태축제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적지만 중장기적으로 청정지역으로서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하며, 지역의 자연 및 생태 보존에 이바지하며, 축제 테마를 브랜드화 하고 이를 지역상품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 삶'과 '생태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더 많은 방문객, 관광객, 이주민들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결국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생태축제를 둘러싼 참여자 간의 인식 차이를 밝히는 것은 축제와 관련된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화합'이라는 지역축제의 목표 중 하나를 보다 발전적으로 성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으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생태축제 참여자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은 밝혔지만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둘째, 우리나라 생태축제를 대표하는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축제의 다양성과 개별적 특성을 감안할 때,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참고문헌】

- 고동우.(2005). 참여 역할에 따른 축제 평가의 지각구조 비교연구. 『관광·레저연구』, 17(2): 7-24.
- 곽민정.(2010). 「지역문화축제 홍보에 대한 공급자와 지역주민간의 인식 차이 연구: 안동국제탈춤축제의 홍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성학.(2003). 「함평나비축제 공간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양수.(2007).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함평나비축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영미·김성섭·송영석.(2007). 생태관광축제로서 함평나비축제의 상품개발 과정: 성공요인 및 평가. 『관광연구저널』, 21(3): 459-484.
- 김준.(2003). 환경축제의 실태와 가능성: 함평나비축제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3(1): 143-168.
- 김형국.(2011). 「녹색성장 바로 알기」. 파주: 나남.
- 노경희.(2010). 「지역축제 추진과정에서 이해집단 간 갈등관리가 축제성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미수.(2007). 생태축제 브랜드와 축제이미지 일치성에 관한 연구: 무주반딧불축제를 사례로. 『관광경영학연구』, 11(3): 27-44.
- 박미숙·이훈.(2004). 생태자연축제 평가항목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전문가와 방문객조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8(2): 271-289.
- 박영신.(1984). 「갈등의 사회학」. 서울: 까치글방.
- 서정원.(2005). 「생태관광축제 방문객의 동기·태도·관여도가 축제브랜드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 서휘석·윤정현.(2006).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익산서동축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4): 207-229.
- 송명규.(2012). 생태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를 사례로. 『환경영향평가』, 21(1): 53-61.
- 송명규·이경진.(2012). 축제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20(3): 51-83.
- 송복.(1986). 「사회불평등 갈등론」. 서울: 전예원.
- 송영택.(2006). 「해양수산축제의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축제 주최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신용석.(2004) 지역축제에 나타난 지역사회 참여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해집단의 역할관계를 중심으로. 『제56차 단양 국제관광학술심포지엄』, 127-136.

- 여영숙.(2009).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으로서 생태관광의 전망: 순천만 갈대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3(4): 383-401.
- 오정근.(2009). 『축제의 의미부여와 의미구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덕구.(2008). 『한국축제의 개선방안』. 대전: 이화.
- 이재광.(2009). 『함평 나비혁명: 에버랜드보다 높이 난 시골축제의 기적』. 서울: 페이퍼로드.
- 이훈·D. L. Kerstetter.(1997). 방문자들의 예술축제 경험과 평가분석: 지역주민 참가자와 관광객자 비교연구. 『관광연구논총』, 9: 145-155.
- 전병순.(2009). 『지역축제의 효과분석과 민간참여 활성화 연구: 무주반딧불축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강환·노용호.(2003). 생태관광형축제 평가 연구: 무주반딧불이 축제 사례.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6(4): 103-112.
- 조배행·최영희·김동희.(2005).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지각 차이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5): 426-439.
- 허성란.(2010). 생태축제영향 인식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14(2): 269-290.
- Dearden, P. and Mitchell, B.(1998). *Environmental Change and Challenge*. Canada: Oxford University Press.
- McGee, N., and Andereck, K.(2004). Factors Predicting Rural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2): 131-140.
- Perdue, R. R., Long, P. T., and Allen, L.(1990).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for Tourism Research*, 17(4): 586-599.